진우 스님, 든든한 밥으로 학생들 응원

5월 19일 서울 연화사에서
청년밥心 동참해 배식봉사
"마음 건강도 잘 챙기길"

박지운 수습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5월 19일 경희대 인근 연화사 공양간에서 '청년밥心'에 동참해 배식 봉사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고물가 시대에 밥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배식봉사자로 변신했다.

진우 스님은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9일 경희대 인근 연화사 공양간에서 '청년밥心'에 동참해 배식 봉사에 나섰다. '청년밥심'은 끼니를 거르기 쉬운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사찰음식을 제공하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복지사업이다.

평소 100여 명 정도가 찼았던 공양간은 스님이 온다는 소식에 150여 명의 학생들로 북적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양간을 찾았을 학생들을 위해 메뉴는 느타리·땅콩조림, 부추·오이무침, 취나물·콩나물 무침, 두부 조림, 양상추 샐러드, 도토리 묵 무침, 표고 탕수육, 고추·청상추 쌈, 미소장국 등 든든한 영양 식단으로 구성됐다.

이날 진우 스님은 부추·오이무침과 콩나물 배식을 담당했다. 스님은 학생들의 입맛을 일일이 물어보며 "오이 좋아하니?"라며 세심하게 챙겼다. 학생들은 "맛있어요", "더 주세요"라고 화답했다.

진우 스님은 학생들에게 "청년밥심'에 마음 심(心)자가 쓰인 이유는 체력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도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밥도 잘 챙겨 먹고 마음에도 밥을 줘 체력과 정신 모두 건강해져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30여 분의 배식이 끝난 후 진우 스님은 학생들과 점심 공양도 함께했다. 이날 방문한 황영택(28) 경희대 학생은 "매주 찾는 곳인데, 총무원장 스님께서 직접 오셔서 놀랍고 감사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후배들에게도 든든한 밥이 계속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사 후 경내 부처님 생신카페로 꾸며진 카페로 이동해 경희대 불교학생회(회장 위아름)와 차담이 이어졌다. 진우 스님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을 경청하고 따뜻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이날 배식에 함께한 연화사 주지 묘장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은 "오늘 총무원장 스님이 연화사를 방문해주셔서 학생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다"며 "현재 연화사 청년밥심은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고 있지만, 점차 횟수를 늘려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 사무처장 덕운 스님, 재단 홍보대사 가수 배아현 씨 등도 배식 봉사에 함께해 청년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AI시대, 평화 해법 찾다"

UN 기구 대표단, 진관사서 선명상 체험

조계종 · 글로벌 AI 허브 유치위
8개 기구 27명…한국불교 체험



사진 제공=조계종

UN 기구 대표단이 서울 진관사를 찾아 선명상과 사찰음식을 체험하며 AI시대 인류 공동체의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함께 모색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글로벌 AI 허브 유치위원회는 5월 21일 서울 진관사 전승교육관에서 'UN 기구 대표단 초청 선명상·사찰음식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허브'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AI시대에 필요한 치유와 평화, 공존의 가치를 불교 수행문화인 선명상을 통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UN 기구 대표단으로는 에이미 포프 국제이주기구(IOM) 총재 등 UN 8개 산하기구(UNHCR, UNICEF, UNDP, WFP, UNEP, IOM, OHCHR, WHO) 대표단 27명이 함께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디지털 기술 역량과 함께 수천 년 수행 전통 속에서 축적된 선(禪)의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유엔과 세계 각국이 기술 경쟁을 넘어 인간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치유를 함께 고민하며, 선명상과 같은 수행문화가 인류 공공의 안녕을 위한 보편적 가치로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에이미 포프 총재는 대표 인사말을 통해 "AI시대를 맞아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복지와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UN 대표단은 진관사 명상센터장 혜주 스님의 지도로 싱잉볼 소리에 맞춰 선명상을 체험하고 진관사가 준비한 사찰음식을 공양했다.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은 "진관사 사찰음식은 국가와 종교를 넘어 모든 존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평안을 발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며 "이 음식이 한국불교의 자비의 평화 공존의 정신으로 함께 기억되길 발원한다"고 기원했다.

참석자들은 인류 공존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피스(peace)"를 외치는 기념촬영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내영 기자

상진 스님 "'금일 참회'해야 참군인된다"

태고종, 육사서 수계법회
생도 100여 명 불자 '거듭'


태고종은 5월 20일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에서 생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생도들에게 연비 의식을 진행하는 모습.

"부처님과 진리와 스님들을 의지해 받은 귀한 다섯 계율과 공덕으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마침내 대자유의 깨달음을 이루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오계를 수지하고 부처님 제자로 거듭났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5월 20일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에서 생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전계사로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나서 생도들에게 오계를 설했다. 상진 스님은 수계의 의미를 전하며 생도들이 참된 군인이 되어주길 당부했다. 스님은 "계(戒)라는 것은 도덕적 행위, 경건한 생활 등을 의미한다"면서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 열반의 행복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며 성불의 경지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다"고 계율의 의미를 설했다.

상진 스님은 "불자의 오계는 남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계율을 지키는 일은 자기 발전의 길이며, 불교의 궁극 목표인 해탈로 나아가는 방편문"이라며 "스스로 마음이 청정해야만 그 몸이 안락한 것이며 나아가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수경〉의 '십악참회'를 설명한 상진 스님은 "오계를 받게 되면 마땅히 참회를 해야 한다"면서 "살다보면 욕심이 생기고 계를 범할 수 있지만 '금일 참회'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사람, 참된 군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오계를 설한 상진 스님과 인례사 스님들은 생도들에게 연비 의식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생도들은 참된 불자로 거듭났다. 이어 동참대중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데 앞장서겠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를 존중하고 생명을 아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상진 스님은 육군사관학교 전법 지원금 1000만원을 화랑호국사에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경국사·약수사·미타사 주지 임명


일운 스님


탄정 스님


상덕 스님

진우 스님, 5월 20일 임명장 수여

조계종 직할교구 경국사 주지에 일운, 약수사 주지에 탄정, 미타사 주지에 상덕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일운·탄정·상덕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수여하고 "가람수호와 대중포교, 전법에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국사 주지 일운 스님에게는 "일운 스님은 가람수호와 함께 불교 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경국사는 지관 대종사의 유지가 담긴 사찰인 만큼 불사와 전법포교에 매진해 사찰 품격에 걸맞는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탄정·상덕 스님에게도 "그동안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원만하게 사찰을 이끌고 전법에 마음을 더 써달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인도/네팔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출발일 : 10월 29일/11월 4일/11월 11일/11월 25일
▶동참금 : 290만원~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아–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서역기행의 시작,
중국 실크로드 6박7일
▶일 정 : 인천–서안–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맥적산석굴–수렴동마애불–란저우–돈황(막고굴, 명사산)–투루판(베제클리크석굴, 고창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서안–인천
▶동참금 : 문의
★ 국내선 2회+고속열차 1회로 편안한 일정 ★


황금빛 불탑의 향연,
미얀마 양곤+짜익티오 4박5일
▶일 정 : 인천–양곤–짜익티오–바고–양곤–인천
▶동참금 : 문의 ★금, 일 출발가능★
미얀마 완전일주 6박7일
▶일정 :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양곤–인천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